

# 계부와 딸 살해 친모 끈질긴 수사에 덜미

“미대 자루 속 벽돌과 비슷하데? 그물도 이 주변에 있을 것 같다. 더 살펴보자”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숨겨 한 친모의 범행이 실체를 드러냈다.

1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가 지난 16일 구속됐다.

남편 김모(31)씨는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로 구속,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57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서 A(12)양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했다.

발견 당시 숨진 A양 몸에는 붉은 벽돌이 담긴 마대자루가 매달려 있었다. 3시간 뒤 A양의 의붓아버지 김씨가 단독 범행이라면서 자수했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에 의해 친딸이 숨졌다는 사실에도 비교적 차분한 친모의 태도를 미심쩍게 여겼다. A양의 사망 시점과 행적에 대한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내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하자, 김씨가 입을 열었다. 김씨는 친모의 진술을 호소하며 공모 범행을 실토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된 유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구속영장 신청 시한인 36시간 안에 유씨의 공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증거를 토대로 유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인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유리한 공범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씨는 “사체 유기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교외지역에 버려 은폐했다. 이후 A양 사체를 가라앉히기 위해 유씨와 함께 만들었던 재유기 도구(벽돌을 단 그물)도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재유기 도구를 버렸다고 지목한 한 연수원 인근 농수로로 수색했다. 경찰관 10여명이 폐가전제품 등 각종 쓰레기 더미 속을 1시간 가량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성과없이 철수를 하려던 참나 깨진 붉은 벽돌이 나왔다. 숨진 A양의 사체에 매달려 있었던 마대자루 속 벽돌과 같은 것이었다. 자택 화단에 있던 벽돌을 그물에 매달았다는

## 영장 기각된 친모의 공모 정황 입증 주력 ‘구속’ 집중 수색으로 그물 등 범행도구 찾아내 수사 성과

김씨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19여분이 지나 부부가 재유기기를 위해 만들었던 벽돌 단 그물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11일 까지 이틀간 경력 100여명을 동원해 김씨가 버렸던 차량 블랙박스·장갑도 찾아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행 열흘 전 부부가 경북 문경을 찾아 사

체 유기를 미리 계획했던 정황, 범행도구 구입·살해 당시 유씨가 동행했던 점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숨진 A양의 몸 속에서 검출된 성분과 같은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전남지역 한 병원을 찾은 부부 모습도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가 사체유기 방법을 의논한 정황, 사체 재유기 도구를 함께 만든 점, 유씨의 수면제 처방

사실 등으로 미뤄 유씨를 공범으로 판단해 지난 13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결국 범행 20일 만에 유씨는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 홍석봉 강력 4팀장은 “부족한 수사 기간과 인력 속에서도 친모 유씨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형사들이 출산 휴가까지 반납하며 수사에 전력을 다한 덕에 부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정상이 보인다” 지난 19일 강원 화천 DMZ 일원에서 열린 2019 화천 DMZ 릴리에 참가자들이 힘찬 라이딩을 펼치고 있다.

## 광주 첨단 49층 주상복합건물 2차 교통영향심의도 제동

진출입로 위치 개선 등 교통시설 보완 안돼

심의위 소위원회 꾸려 직접 현장 확인키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추진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도 보완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인 롯데자산개발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의위가 요구한 9가지 교통안전시설

보완사항에 대해 주차장 면수 확대와 초등학교 통학로 등 일부 시설계획을 개선해 제시했다.

하지만 진출입로 위치 개선 등이 보완되지 않아 심의위가 소위원회를 꾸려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소위원회의 현장 확인 보고서가 접수되면 3차 회의 일정을 잡고 심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49층 주상복합건물은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건축 및 도시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초고층 건물 신축이 추진되면서 중소상인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이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49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상권은 물론 교통, 교육 여건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자산개발은 광산구 쌍암동 롯데슈퍼 첨단점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 광양아파트서 축대 붕괴...차량 3대 파손

광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축대가 무너져 차량 3대가 파손됐다. 19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광양시 중동 한 아파트 인근 계단식 석재 축대(가로 90m·높이 10m) 중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3대가 매몰,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굴착기 등 장비를 동원해 4시간 가량 응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광양 지역 강수량은 55mm를 기록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길 건너던 50대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져

도로를 건너던 50대가 잇따라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36분께 해남군 해남읍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던 A(54)씨가 B(50)씨가 몰던 SUV차량에 치였다. 이어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쓰러진 A씨를 다시 치고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달아난 차량의 뒤를 쫓는 한편, A씨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완도 해상서 70대 선원 숨진 채 발견

완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70대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15분께 완도군 약산면 조약도 북쪽 해상 인근 갯벌에서 A(7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등급 연안복합 선박 B호에 홀로 타고 있었으며, 지난 17일 오후 7시38분께 조약도 인근 해상에서 B호만 발견됐다.

이후 해경은 경비정 2척, 구조정 2척과 구조대 89명 등을 투입해 주변 해상과 육상을 집중 수색했다.

해경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신안 리조트 투숙객 16명 식중독 의심 증상

신안 한 리조트에 머물던 투숙객 16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9일 전남도소방본부와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3분께 신안 한 리조트에서 A(54) 씨 등 16명이 원인 불명의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목포와 무안 등지의 병원으로 이들을 이송했다.

A 씨 등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리조트 내 식당에서 해산물과 회 등으로 저녁식사를 마친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광양경찰서 간부, 음주 뺑소니 혐의 검거

광양경찰서 소속 경감이 음주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한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18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7분께 순천시 팔마체육관 앞 오거리에서 광양경찰서 A 경감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B(34) 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차에 타고 있던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 경감은 현장을 떠났다.

B 씨는 A 경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A 경감은 18일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A 경감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블랙박스와 주변 CCTV,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